

2018년 12월 11일

# KIWOOM DAILY

|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Strategist/Market 사상영 02) 3787-5241/ehdwl@kiwoom.com

## 미 증시, 대형 기술주 강세에 힘입어 상승 전환 메이 영국 총리, 브렉시트 합의안 표결 연기 발표도 상승 전환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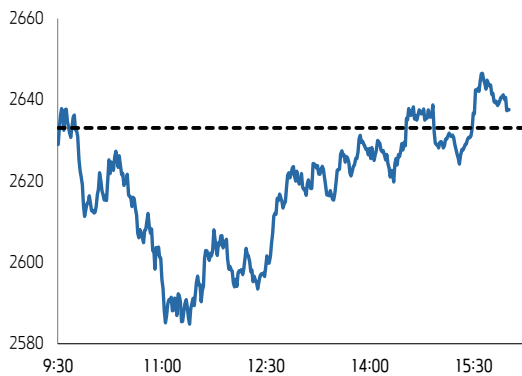
### 미 증시 변화 요인

미 증시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및 브렉시트 불확실성 여파로 하락 출발. 그러나 영국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표결을 연기했다는 소식과 대형 기술주가 반등에 성공하자 상승 전환 성공. 특히 장중 3% 넘게 하락하던 애플이 상승한 점도 영향(다우 +0.14%, 나스닥 +0.74%, S&P500 +0.18%, 러셀 2000 -0.34%)

미 증시는 OECD 경기선행지수 발표 이후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이 부각되자 금융주와 에너지 업종이 하락 주도. OECD 경기 선행지수는 2018년 들어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 최근 시장참여자들이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에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 이유이기도 함. 이런 가운데 오늘도 전월(99.49) 보다 하향 된 99.36 으로 발표. 특히 미국(99.83→ 99.72), 유로존(99.63→99.48) 등 선진국이 기준선(100)에 미치지 못한 가운데 하락 추세를 이어감. 반면, 중국(98.76→98.84)은 3 개월 연속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음. 인도(101.05→ 101.14) 또한 2017년 이후 상승 추세를 이어가는 등 신흥국 경기가 개선되고 있음을 반증. 이에 힘입어 최근 글로벌 주식자금이 선진국에서 신흥국으로 7 주 연속 이동 중. 한편, 한국(99.21→99.05)은 18 개월 연속 위축

한편, 메이 영국 총리는 11 일 예정된 브렉시트 합의안 의회 표결을 북아일랜드 국경 관련 '안전장치'에 우려가 있다는 점을 들어 연기. 그러나 이면에는 11 일 표결시 합의안이 부결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메이총리가 연기한 것으로 추정. 최근 FT 설문조사에 의하면 '합의안'이 50~75 표 차이로 부결될 것이라고 보도하는 등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의원 대상 설문조사에서 부결 가능성이 높다고 보도. 시장 참여자들은 '노딜 브렉시트'로 인한 금융시장 변동성을 막기 위해 일단 표결 연기를 원했었음. 메이 총리는 브렉시트 합의안 표결에 대해 정확한 입장을 발표하지 않아 여전히 불확실성이 상존하지만, 일단 급한 불은 꺾었다는 점에서 긍정적. 한편, 금융시장은 메이 총리 발표 이후 여전히 '노딜 브렉시트' 우려 여파로 파운드화가 달러 대비 0.7% 넘게 약세로 전환했으나, 미 증시는 낙폭 축소하는 등 엇갈린 양상

S&P500 일중 차트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Global Indices

지수종류(%)	Close	D-1	지수종류(%)	Close	D-1
KOSPI	2,053.79	-1.06	홍콩항셱	25,752.38	-1.19
KOSDAQ	670.39	-2.18	영국	6,721.54	-0.83
DOW	24,423.26	+0.14	독일	10,622.07	-1.54
NASDAQ	7,020.52	+0.74	프랑스	4,742.38	-1.47
S&P 500	2,637.72	+0.18	스페인	8,660.00	-1.76
상하이종합	2,584.58	-0.82	그리스	638.20	-1.62
일본	21,219.50	-2.12	이탈리아	18,410.13	-1.7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본 자료는 투자자의 증권투자를 돕기 위하여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서 어떠한 경우에도 복사되거나 대여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것이나, 당사는 그 정확성이나 안전성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고객의 증권투자의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에 대한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주요 업종 및 종목 동향

### 대형 기술주 상승

애플(+0.66%)은 씨티그룹이 투자의견을 하향 조정하고 중국 법원이 일부 아이폰 판매 금지 결정을 발표하자 장중 한 때 3% 넘게 하락하기도 했으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단행하면 이를 피할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진 이후 상승 전환에 성공 했다. 퀄컴(+2.23%)은 관련 소식에 힘입어 상승 했다. 한편, 인텔(+2.10%)은 관련 소식이 향후 애플과 견고한 협력이 기대 된다는 점이 부각돼 상승 했다. 페이스북(+3.22%)은 90억 달러에 달하는 자사주 매입 발표에 대한 기대감이 부각돼 상승 했다. 알파벳(+0.63%), MS(+2.64%), 아마존(+0.73%), 넷플릭스(+1.72%) 등도 동반 상승 했다. 브로드컴(+4.68%)은 실적 개선 소식이 부각돼 상승 했으며 NVIDIA(+2.88%)도 상승 했다. 록히드마틴(+4.56%) 등 방위 산업 업종은 트럼프가 2020년 예산안에서 방위비를 더욱 늘릴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자 급등 했다.

반면, JP모건(-1.87%), 웰스파고(-2.90%), BOA(-2.63%) 등 금융주는 경기둔화 우려감이 지속되자 국제금리가 하락 했으며, 이 여파로 매물 출회되며 하락 했다. 엑손모빌(-1.42%), 코노코필립스(-1.08%), EOG리소스(-1.83%) 등 에너지 업종은 경기 둔화 우려속에 국제유가가 하락하자 부진했다.

#### 주요 ETF

ETF 종류	등락률	ETF 종류	등락률
원유시추업체 ETF	-3.20%	대형 가치주 ETF	-0.50%
에너지섹터 ETF	-2.55%	중형 가치주 ETF	-0.58%
소매업체 ETF	+0.39%	소형 가치주 ETF	-0.86%
금융섹터 ETF	-1.39%	배당주 ETF	-0.46%
기술섹터 ETF	+1.38%	변동성 ETF	-0.47%
소셜 미디어업체 ETF	-0.17%	대형 성장주 ETF	+0.53%
인터넷업체 ETF	+1.10%	중형 성장주 ETF	+0.47%
리츠업체 ETF	-0.38%	소형 성장주 ETF	+0.13%
주택건설업체 ETF	-1.72%	신흥국 고배당 ETF	-0.34%
바이오섹터 ETF	+0.17%	신흥국 저변동성 ETF	-0.69%
헬스케어 ETF	+0.39%	하이일드 ETF	-0.09%
곡물 ETF	-0.43%	물가연동채 ETF	-0.25%
반도체 ETF	+1.16%	Long/short ETF	+0.80%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US Sector Index

S&P 500	Close	D-1	D-5	D-20
에너지	463.72	-1.62%	-4.67%	-8.64%
소재	324.34	+0.30%	-4.92%	-6.97%
산업재	571.09	+0.26%	-6.05%	-7.04%
경기소비재	818.62	+0.13%	-4.10%	-7.42%
필수소비재	558.74	+0.02%	-3.07%	-3.87%
헬스케어	1,049.44	+0.33%	-4.32%	-2.68%
금융	409.63	-1.40%	-8.38%	-9.71%
IT	1,145.75	+1.43%	-3.71%	-7.94%
커뮤니케이션	144.78	+0.75%	-3.39%	-4.61%
유틸리티	285.32	+0.30%	+1.64%	+2.77%
부동산	208.56	-0.42%	-0.15%	+2.07%

자료: 블룸버그, 키움증권

## 한국 주식시장 전망

### 반등 기대

MSCI 한국 지수는 0.19% 상승했으나 MSCI 신흥 지수는 1.05% 하락했다. 야간선물은 외국인의 순매도(-1,034 계약)에도 불구하고 0.70pt 상승한 266.10pt 로 마감 했다. NDF 달러/원 환율 1개월물은 1,127.00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보합 출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 증시는 오후 들어 기술주가 강세를 보인 데 힘입어 낙폭이 축소되었다. 특히 메이 영국 총리가 11 일 '브렉시트 합의안' 표결을 앞두고 부결 가능성이 높아지자 표결을 연기한 점은 '노딜 브렉시트' 충격 우려를 완화 시켰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줬다. 이는 한국 증시 반등 가능성을 높이는 이슈다. 전일 한국 거래소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상장 유지 결정을 발표한 점도 불확실성 완화 기대감을 높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한편, 지난 11 월 30 일 결정된 애플의 아이폰 기종 일부에 대한 중국 판매 금지가 보도되었다. 시장 일부에서는 관련 이슈를 미-중 무역분쟁으로 확대해석하기도 했으나, 이전부터 제기되었던 점을 감안 관련 이슈로 확대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보도 직후 애플이 한때 3% 넘게 하락하기도 했으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iOS12)를 단행하면 이번 조치를 피해갈 수 있다는 점이 알려진 이후 애플이 상승 전환한 점을 감안 관련 이슈가 크게 부각될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전망한다. 이러한 변화요인을 감안하면 한국 증시는 반발 매수세 유입이 기대된다.

다만, OECD 경기선행지수 하락추세가 이어져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이 여전히 투자심리를 위축시켰다는 점은 부정적이다. 특히 이 여파로 국제유가를 비롯해 상품가격이 하락한 점은 부담이다.

## 주요 경제지표 결과

### 미국 고용지표 견고함 지속

10 월 미국 채용공고는 전월(696 만건) 보다 증가한 707.9 만건으로 발표되었다. 특히 정보통신, 부동산, 교육 등의 채용공고가 증가했다. 한편, 이직률은 2.3%로 낮아졌다.

## 상품 및 FX 시장 동향

### 국제유가 급락

국제유가는 달러 강세 및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이 높아지자 하락 했다. OECD 경기 선행지수가 지속적으로 위축되자 글로벌 경기 둔화 이슈가 부각 되었으며, 이는 향후 수요 둔화 가능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부담이었다. 한편, 중국의 11 월 원유 수입량이 전년 대비 15.7% 증가해 하루 1,048 만 배럴을 기록 하는 등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나, 미-중 무역분쟁이 격화된다면 향후 축소될 수 있다는 점이 부각된 점도 부담이었다.

달러화는 견고한 고용지표가 발표된 데 힘입어 여타 환율에 대해 강세를 보였다. 더불어 파운드화가 영국 메이 총리가 브렉시트 합의안 관련 표결을 연기 한다고 발표하자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인 점도 달러화 강세 요인 중 하나였다. 한편, 유로화와 엔화도 달러 대비 약세를 보였으며, 신흥국 환율 또한 약세를 보였다. 특히 엔화는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감이 부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달러 대비 약세를 보여 관련 이슈가 확대될 개연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전망한다.

국채금리는 장 초반 고용지표 개선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속에 하락하기도 했다. 그러나 미국 주식시장이 상승 전환하자 위험자산 선호심리가 부각되며 상승 전환에 성공하기도 하는 등 보험권 등락을 보였다

금은 달러 강세 여파로 하락 했다. 구리를 비롯한 비철금속은 글로벌 경기 둔화 우려 부각 및 달러 강세 여파로 하락 했다. 중국 상품선물시장 야간장에서 철광석은 보합을 보였으나 철근은 1.62% 하락 했다.

주요 상품	증가	D-1(%)	D-5(%)	주요 통화	증가	D-1(%)	D-5(%)
WTI	51.00	-3.06	-3.68	Dollar Index	97.219	+0.73	+0.18
브렌트유	59.97	-2.76	-2.79	EUR/USD	1.1353	-0.23	-0.01
금	1,249.40	-0.26	+0.79	USD/JPY	113.29	+0.53	-0.33
은	14.605	-0.62	+0.73	GBP/USD	1.2559	-1.31	-1.30
알루미늄	1,938.00	-0.87	-1.82	USD/CHF	0.9901	-0.19	-0.74
전기동	6,089.00	-0.91	-3.27	AUD/USD	0.7187	-0.29	-2.32
아연	2,575.00	-0.46	-0.31	USD/CAD	1.3396	+0.56	+1.51
옥수수	384.00	-0.39	+0.52	USD/BRL	3.923	+0.42	+2.05
밀	525.25	-1.13	+0.77	USD/CNH	6.9118	+0.39	+0.51
대두	909.75	-0.76	+0.44	USD/KRW	1126.50	+0.60	+1.42
커피	105.15	+1.01	-2.46	USD/KRW NDF1M	1127.00	+0.34	+1.71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10년물 금리	증가(%)	D-1(bp)	D-5(bp)
미국	2.854	+0.89	-11.58	스페인	1.440	-0.80	-5.00
한국	1.977	-2.00	-15.00	포르투갈	1.780	-1.50	-2.00
일본	0.043	-1.60	-4.30	그리스	4.233	+2.30	+4.70
독일	0.246	-0.30	-6.00	이탈리아	3.103	-2.50	-4.00